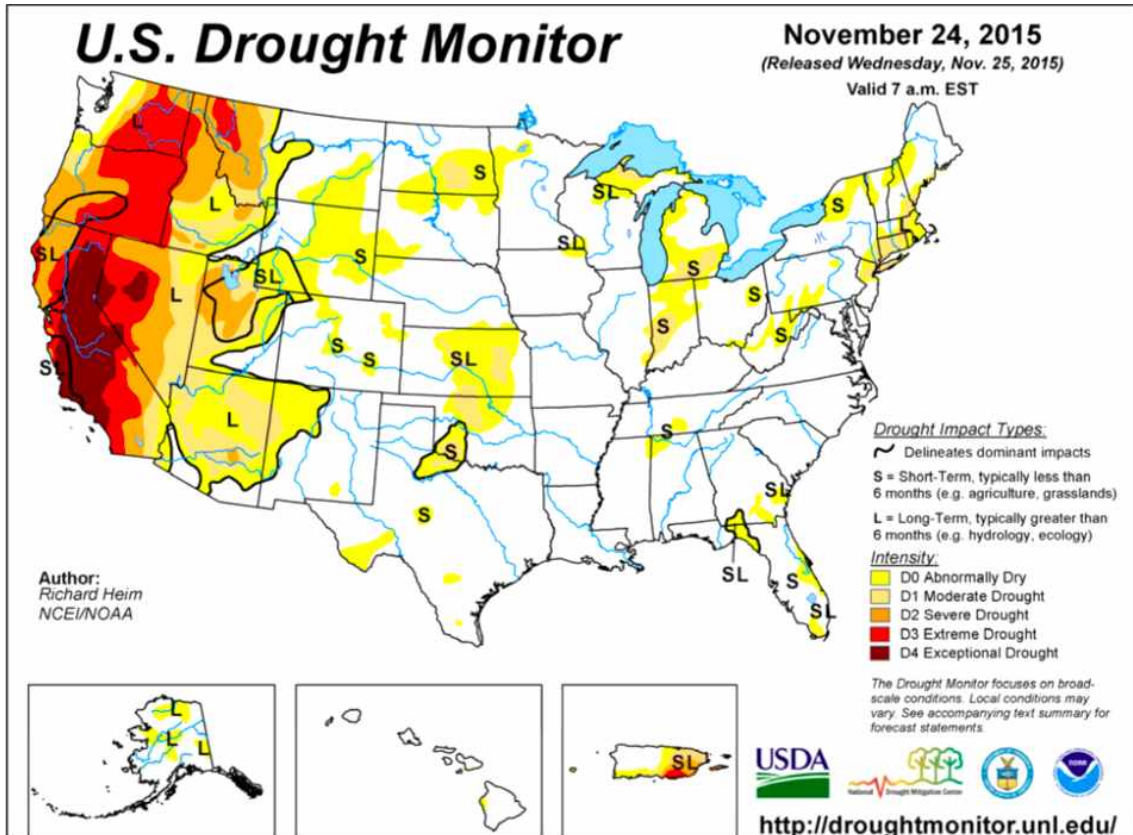


12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8)

□ 미국 기후 현황(11/22~11/28)



남부 대평원과 남동부에서는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동부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주 후반까지 이어졌고, 겨울밀 파종작업과 면화, 땅콩, 대두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남부 대평원과 오대호 인근에서는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 비가 오다가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농작업을 지연시켰다. 중서부에서는 옥수수 수확작업이 거의 끝이 난 반면에, 남부에서는 아직까지 면화 수확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남부와 남동부 평원지대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서부에서는 지난주 내린 눈이 녹아 없어진 반면, 남부와 중부, 서부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눈이 쌓였다. 남서부와 북중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북부 고원 일대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했다. 북서부 일대에도 눈이 내렸고, 평원 일대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다.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10~15°F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 북부 평원지역과 북부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다.

□ 세계 기후 현황(11/22~11/28)

■ 유럽: 남동부 일대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천천히 이동하는 지중해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남부, 발칸반도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15~130mm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늦가을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이와 달리, 스페인 전역과 이탈리아 북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1~3°C 정도의 추운 날이 이어졌다. 중부와 북부 등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겨울작물이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독일 일부 지역 등 북부에서는 4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첫 눈이 관찰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비가 내렸고,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부 일대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와 눈이 내렸다.

■ 구소련(서부): 가뭄이 심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내려 가뭄을 다소간 해소해 주었고, 남부에서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밀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중부 일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5~30mm 내외의 비 또는 눈이 내렸다. 지난 90일 이상 지속되었던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겨울밀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어느 정도 공급해 주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 등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5°C 미만으로 유지되었고, 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밀은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부 일부 지역, 중부 지역 등에서는 2~10cm 정도의 눈이 내렸다. 러시아 남부의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5~8°C 수준을 유지했다. Krasnodar Oblast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겨울밀 생육조건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 평원지대와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주초반 비가 내렸다. 북부 고원에서는 10~25mm의 비 또는 눈이 내렸고, 북부 평원의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영하 10°C까지 내려가서 작물들이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Shangdong, Hebei 등에서는 기온이 영하 15°C까지 내려가서 동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평년수준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0°C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 호주: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이주 연속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맑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이 덕분에 카놀라 등의 수확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곡식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의 비가 내렸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2~4°C 정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까지 올랐다. 뉴 사우스 웨일즈의 그밖의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에서 30°C 초반까지 올랐다.

■ 아르헨티나: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여름작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중부의 Cordoba 등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에서도 비가 내렸고, 이들 지역의 가뭄을 다소간 해소해 주었다.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았다. Santa Fe를 비롯해 동부의 Chaco, Formosa, Santiago del Estero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다 서쪽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3°C 정도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90%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p 낮은 수준이고,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률은 각각 49%, 45%를 기록했다.

■ 브라질: Bahia서부의 대두, 면화 재배지역인 브라질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50~100mm의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중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 Minas Gerais 남부 등 커피 재배지역에서는 25mm미만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Minas Gerais 서부, Sao Paulo 등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부 곡창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4°C 정도 높은 기온을 유지했고,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올랐다. 남부의 대두,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에서 30°C 초반까지 올랐다.